

고은 불교대하소설

이승을 마치다

우 너의 더부룩한 자란 사발머리만 이 운전하였다. 어찌다가 생각 나면 그 자신의 삭도질로 혼자 머리를 말아낸 지가 얼마나 되는가. 머리가 자라나는 동안이 이 세상의 목숨이었다.

이제 머리가 자랄 일은 없으리라. 그의 아랫도리는 벌써 물속의 조류에 의해서 벗겨져 있었다. 아무리 단단히 허리띠나 옷고름을 댄다 하더라도 파도더미에 시달리고 나면 그런 것은 무엇이 풀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상반신도 끝내 알몸이 되고 말았다.

러가서 그곳의 잔치에 동참한 것 같았다. 우너는 거의 어이없는 공상인 양 송나라 시절 대해와 공지의 기이한 우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승의 마지막이 되는 이 사경(死境)에서 옛 선사들의 수작을 떠올리는 우너가 차라리 아꼈하였다.

만주족에 대한 한국의 열렬한 주전파(主戰派)였던 대해는 그 때문에 화친과 세력의 집권으로 유배 10여년의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만큼 대해는 세속의 일이나 산중의 일에 무척 극한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간화선은 목조선 따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의 정치적 주전노선처럼 사악한 것으로 철저히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 대해를 목조선의 종장(宗長) 공지는 대해와는 달리 아주 너그럽게 대하고 있었다.

그가 10여년이 지난 뒤 유배지 공중에서 돌아오자 공지는 그에게 한 절의 주지직을 추천하였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그 절의 소임자들에게 양식을 많이 비축하도록 일러두기까지 하였다.

대해가 주지로 부임한 뒤 간화선의 세력은 날로 불어나서 과연 비축한 양식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대해는 지난 날이나 이제나 수평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적대관계였지만 끝내



“바람이었나니
바람이었나니
이것으로 나다 너다 하고 장난이었나니”
우너의 낮은 바람의 노래를 불렀다

“아!”
“아! 생을 무엇이라고... 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헛되도다...”
“아! 하여간... 이승이 좋았다... 이승이 좋으니 저승도 좋으리...”
그런 생각이 일새처럼 머리 속에서 굴러가는데 고기들의 입질이 끊어진 아랫도리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들고 돌아 제 자리인가
그동안
파도하고만 살아 왔구나
이제 무엇하고 살아가리...

아 마도 이런 말 다음에는 다른 말을 남긴 것 같지 않았다. 우너는 어느덧 시체로 파도에 떠 있었고 그가 불되고 있었던 나무 토막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다.

그 시체는 아주 잘 만들어진 정결한 재물로 되어 있었다. 그 재물에 꽤 커다란 고기들이 달라붙어 그동안 그 누구도 들여다 본 적이 없게 간직함으로써 오로지 공부만 해 온 진리의 몸을 조금씩 파

우리 치지다 라고 달라붙어 뼈 사이의 살점 따위를 뜯어 먹었다.

끝내 그 시체는 뼈로 남겨져서 무거운 것도 없는데 슬슬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너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가서 태어남인가.

하지만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어디에도 아직 우너가 가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한 마리 집없는 새처럼 떠다니는 녀이 리면 그것이 녀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런데 그런 떠다니기에도 법칙이 있었다.

며칠씩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일곱날의 밤낮이었다. 그러기를 몇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일곱날이 일곱번 더하여 49일이 되었다.

우너의 낮은 그런 바다 위 거센 바람이 불러가는 허공 가운데서 바람의 노래(風謠)를 불렀다. 그 노래는 생시보다 더 선명한 것이었다.

바람이었나니

우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수미산 천인들은 그를...

공지를 찾아가서 찬탄하기에 이르렀다.

“옛 부처가 아닐진대 어찌하여 이런 공덕을 배무셨습니까?”
공지는 말하였다.

“내 벗은 정령 단산이었소.”
그들은 그 뒤로도 서로 다른 수선(修禪)의 길을 갔다.

대해가 다시 한번 공지한테 갔다.

“이제 우리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부르면 당신이 대답하다... 하루 아침에 먼저 죽는 쪽이 있으면 남아있는 쪽이 장사지내주기로 합시다.”

이듬해 공지가 먼저 죽었다. 대해가 장사지냈다.

“내 장사야 공지선사의 혼령이 와서 지내줄 터이니 그 또한 기쁜 일이다.”

이런 우정을 떠올린 것은 그 우정이 죽음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우너의 막다른 고목이 그런 죽음의 열원이 반영되었는지 모른다.

지금 그는 혼자였다.

“... 여럿이도다”라고 말한 사실이 어찌도 사람들이 사라진 마당에 헛되고 말았다. 그는 여럿이 아니라 혼자였다.

그는 무욕도 쪽이 어느 쪽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그 쪽이라고 여기며 파도마루에 솟아올라 쳐다 보았다.

아예 누런 해안선 따위로 없어졌다. 쉬어 가라. 쉬어 가라.

이 말은 목조선의 너그러움을 뜻하거나 우너는 그런 너그러움까지도 그 자신의 몫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보다는 이미 날이 저물었도다 라는 비장한 고대의 한 넋두리가 그에게 알맞는 것이었다.

난 날들이 번개처럼 그의 가슴 속을 그어갔다. 무욕도의 세월보다 그 이전의 어린 시절이 더 분명한 기억들이었다.

그가 맨처음 몸을 버리게 된 일도 떠올랐다. 열다섯 살이었다.

어머니 재사를 지낸 새벽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내한테 지친 몸은 노리게 되었다. 사내는 수건같은 것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따위를 방지할 줄 아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두번이나 감당한 아픔 때문에 차라리 눈을 따위가 나올 거를도 없었다. 아니, 그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을 뜻

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두번째는 덜 무서웠고 덜 미웠다. 사내가 한 마디 남겼다.

“다시 오겠다.”

새벽 검푸른 어둠 속으로 문을 가만히 여닫고 가버린 그 사내를 전혀 알아맞출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총각들이나 남장네 그리고 먼 친척 가운데 그를 눈여겨 바라보던 사람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심증이 닿는 대상은 없었다.

아무튼 그 사내가 말한대로 다시 오는 일은 없었다.

그 뒤로 그는 예성강 나루에서 남루한 치마자락이 흙투성이가 되는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극박 한 그곳에도 몸을 내준 일도 있어야 하였다.

그러다가 돌림병에 걸려 벽란도 뒷마을 물레방아 헛간에 격리되어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그는 다시 나루터 주막거리에서 이 일지 일을 도와주며 밥을 얻어먹고 현 옷을 얻어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환한 웃음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인담선사를 만난 것이었다.

먹기 시작하였다.

언젠가 우너는 그가 무욕도에 오기 전까지를 아예 정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그 정생 이후의 그는 마음 이상으로 몸도 청정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은갖 불경하고 부정한 것을 다 벗어난 후신(後身)으로서의 새로운 명운이 거기에 담겨 해와 달 그리고 꽃 발발만이 삼가 그 몸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 몸이 이제 고기를 가운데 가장 조급한 상어들에게 아주 진기한 음식이 되고 있었다.

고기들의 맹렬한 식욕때문에 그 시체는 마구 요동쳐야 하였다.

파도더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활발하게 밀려오고 밀려나고 있었다.

말리서 해조음이 푸르딩딩하게 울려 오지만 그것은 그 일대의 파도소리 때문에 제대로 권위를 누리지 못하였다.

얼마나 지났는가.

어둑어둑한 구름장이 신나게 달리는 공중과 흰것 파도치는 바다 사이에서 한 이승의 시체는 큰 고기인 상어 무리에 이어서 그보다 작은 고기들이 달라붙었고 그 고기들이 떠나자 더 작은 것들이

바람이었나니
이것으로 나다 너다 하고 장난이었나니

우너의 낮은 그의 정생인 예성강 나루인 듯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그 자신을 위로하는 재를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재를 지내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뒤 낮은 바로 다른 세상으로 바쁘게 날아가 하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 낮은 어느 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세상 한 세상을 두루 들여다보며 그곳들을 지나치는 것이었다.

언제까지나 다할 줄 모르는 삼부주의 바다를 지나가 이민달라산이 나오고 그 뒤로 바다였고 이어서 상이산이고 마이산이고 선전산에 이어 더 높은 산을 넘어가니 드디어 수미산에 이르렀다.

그 낮은 33천의 한 천궁에 내려앉았다. 천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조향숙



어디에 대고 부끄러워할 짓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야 할 본능적인 방어로써의 몸짓도 없었다. 옷이 벗겨지면 두 손 바닥으로 알가슴을 가리는 따위의 그런 몸짓 말이다.

진작 그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힘이 약화될 줄 모르는 파도더미 속에서 그의 알몸은 차츰 굳어지고 있었다. 오직 남은 것은 그의 두 손이 불되고 있는 햇빛 한 자루에서 손을 놓는 일이었다.

아직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팔에 걸려있는 웃음도 파도에 너울거리며 해조류의 기다린 자락 노릇을 하고 있었다.

물 속의 허리나 다리 부위에 입질이 있던 고기들이 뜰해졌다.

아마도 저쪽에서 숨진 신체들에게 달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 진주 (055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42)252-7749 미산·청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